



“동아스포츠대상 엄지 엄지 척!” 가수 홍진영(왼쪽)과 (여자)아이들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19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홍진영은 히트곡 ‘엄지 척’과 ‘오늘 밤에’를 부르며 무대 아래로 내려가 각 종목의 스포츠선수들과 눈을 맞추며 호응을 이끌어냈다. (여자)아이들은 ‘우 오’와 ‘라타타’를 통해 색시, 파워풀한 매력을 뽐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시청률 킨’ 서현진, tvN 드라마 ‘블랙독’으로 5연타석 홈런 칠까

“시청률보다 완성도가 욕심나는 작품”

“교사 어머니 조연으로 캐릭터 완성 30%로 힘빼고 연기...결과 궁금해”

“시청률 부담? 있다가도 없습니다.” 연기자 서현진(34)이 달라졌다. 16일 첫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이 변화의 시작이다. 자신에게 전성기를 안겨준 2016년 tvN 드라마 ‘또 오해영’을 통해 얻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도 잠시 내려놓는다. 드라마에서 선보일 신입 기간제 교사 역을 표현하기 위해 ‘칼단발(짧고 단정하게 자른) 헤어스타일과 최소한의 메이크업 그리고 ‘주눅 미(美)’를 준비’했다. 시청률을 향한 욕심도 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 ‘칭찬 받고 싶은 드라마’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서현진은 11일 서울 서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독특한 드라마”라고 ‘블랙독’을 소개했다. 드라마는 한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로 취직한 고하늘(서현진)의 성장 과정을 담는다. 교사들 사이에 존재하



서현진이 11일 서울 서구구 한 호텔에서 열린 tvN 새 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자신의 매력 포인트인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한다. 뉴스

는 은근한 차별, 과열된 입시 경쟁 등 학교 곳곳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그린다. 서현진은 ‘또 오해영’을 시작으로 2017년 SBS ‘낭만닥터 김사부’ ‘사랑의 온도’, 2018년 JTBC ‘뷰티 인사이드’까지 연달아 4번의 흥행을 맞았다. 덕분에 ‘시청률 킨’이란 별명도 얻었다. 자연스럽게 5연속 ‘시청률 홈런’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은 시청률이 아닌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애시청자들의 호평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덧붙혔다. 그만큼 ‘웰메이드 드라마’가 될 것이라 자신감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서현진이 고하늘 캐릭터를 실감나게 완성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사람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어머니와 많은 선생님들을 보며 느낀 놀라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직 기간제 교사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이

는 느끼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평소보다 30% 정도만 힘을 들였다”며 연출자 황준혁 PD의 지시에만 충신했다고 말했다. 서현진은 “힘주어서 연기하려고 하면 감독님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돌아섰다. 평소와는 다른 연기를 하는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였다. “내 연기의 결과가 이렇게 궁금한 적은 처음이라 시도 때도 없이 감독님께 ‘정말 괜찮아요?’라고 묻곤 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극중 진학부장 10년차 베테랑 교사 박성순을 연기하는 라미란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들은 점차 서로를 의지하는 선후배 관계로 등장한다. 라미란은 서현진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기자”라며 칭찬했다. 그는 “(참관)이미지와 달리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다”고 놀리면서도 “등만 나오는 장면에서조차 집요하게 눈빛 연기를 하는 남다른 집중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건모

가수 김건모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볼 수 없게 됐다. SBS는 11일 “15일 방송부터 김건모의 출연 분량이 없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추가 촬영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8일 김건모가 예비신부에게 프러포즈 하는 장면이 마지막 방송으로 남게 됐다. 김건모는 과거 유희열소녀 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9일 피소됐다. 10일에는 또 다른 여성의 폭행 피해 추가 폭로가 나왔다. 김건모 측은 성추문 의혹을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희,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공로상



윤정희

배우 윤정희가 여성영화인들이 뽑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공로상에 선정됐다. 배우 정유미와 임윤아는 각각 연기상과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11일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제20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영화 ‘엑시트’ ‘사바하’의 제작자 위유내상의 강혜정 대표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았고 ‘기생충’의 박진우가 대표의 제작자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별새’의 김보라 감독, 각본상은 ‘생일’의 이종연 감독이다. 홍보 마케팅상은 ‘나의 특별한 형제’의 딜라이트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6시 씨네큐브광화문에서 열린다.

유재석, 올해를 빛낸 예능인 선정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이 올해를 빛낸 예능인에 선정됐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9년 올해를 빛낸 예능방송인·코미디언’ 조사 결과다. 한국갤럽은 11월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다. 유재석은 47%의 지지를 얻어 8년 연속 1위에 올랐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과 MBC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 가수 유산술에 도전해 성공을 거둔 힘이다. 박나래(27.3%), 강호زم(22.7%), 이영자(7.9%), 신동엽(7.1%)이 뒤를 이었다.

김수현, 1인 기획사 설립 준비



김수현

연기자 김수현이 소속사 키이스트에서 독립해 1인 기획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김수현이 최근 연기 복귀작으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선택한 데 이어 소속사에서 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김수현은 입대 전 내놓은 영화 ‘리얼’의 연출자이자 사촌형인 이사랑 감독과 손잡고 매니지먼트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연기자의 영입설도 제기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너 진짜 치사해”...씨엘 ‘양현석 저격송’ 화제 “기부 더블로 가!”...김응수 1000만원 선뜻

‘+안해180326+’ 가사로 YG 비단 팬들 “과감한 그의 도전 환영한다”



씨엘

걸그룹 투애니원 출신 가수 씨엘(이재민·28)이 최근 신곡을 발표한 가운데 전 소속사 주장이었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비난하는 듯한 가사로 시선을 끌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YG 저격송’이라고 부른다. 이달 초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솔로로 독자 행보를 시작한 씨엘은 10일 ‘+안해180326+’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놓았다. 총 6곡을 수록한 ‘사랑의 이름으로’이라는 앨범에 담긴 노래를 통해 2016년 투애니원 해체 이후 3년 동안 겪은 일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씨엘은 ‘우리 엄마 항상 내게 말하기를 포기하지 마. 좋게 생각하자/그런 내게 항상 너는 말하기를 이겨 하지 마/저거 하지 마/(중간 생략)다 안 해/너 없이 나 원래 잘 해/어따 대고 지금 다했/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치사해/결과적으로 웃고 있을 건 나야/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라는

노랫말을 선보였다. 앞서 씨엘은 2018년 6월 양현석이 SNS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앨범 발표 계획을 언급한 게시물에 “사장님 저는요? #문자 답장 좀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갈등을 공개 표출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장’이라고 씨진 모자를 자신의 고양이에게 씌우고, “그래라, 니 맘대로 해라” “웃기시네!”라는 글을 올려 소속사 ‘대장’격인 양현석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모양새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신곡의 노랫말도 투애니원 해체 이후 3년 동안 단 한 장의 앨범도 발표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누앙스로 심경을 드러낸 앞선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이 많다. 노래 제목 ‘+안해180326+’ 속 번호 역시 해당 연도와 월, 일인 2018년 3월 26일 지냈던 심경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에 팬들은 “일종의 비망곡과 같은 앨범”이라고 말했다.

씨엘과 음악적으로 소통해온 한 측근은 11일 “씨엘이 지난 3년 동안 가수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솔로가수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미국에까지 진출했지만,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 “그때 심경을 일기로 썼고, 이를 모아 새 앨범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인회 수익금 포항시장학회 기부 ‘사랑의 열매’ 광고 재능기부하기도

배우 김응수가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김응수는 7일과 8일 경북 포항에서 진행한 팬 사인회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부했다.

김응수의 이번 선행은 2016년 출연작인 영화 ‘검사와 외전’을 촬영하며 포항시와 맺은 인연이 바탕이 됐다. 당시 영화에서 그는 비리검사 출신 이성민에게 포항을 지역구로 내주는 국회의원 역으로 나섰다. 이후 포항의 한 아파트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주민들의 도움을 얻었다. 김응수는 “한 지역에서 얻은 수익은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강제 전성기’를 맞으며 큰 사랑을 받는 만큼 따스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김응수는 1996년 영화 ‘깡패수업’으로 데뷔하고 3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 영화 ‘타짜’ 속 캐릭터인 조폭 두목 박철용이 젊은층 사이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김응수

로 재가공되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런 관심은 무려 50개가 넘는 브랜드의 광고모델 제의를 받는 등 다양한 무대에 서게 하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응수는 자신을 찾는 곳이라면 가능한 한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랑의 열매’ 광고에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7일 공개된 래퍼 머쉬베놈의 신곡 ‘버르장머리’에 랩 피처링을 더해 얻은 수익금도 기부할 생각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